

제 221 호

연중 제6주일

1977. 2. 13.

순정이

발행인	김종택
인쇄인	범석규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편집실 : 전주서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55098)

□ 강론 □



넋 빠진 사람들

김태윤 신부

우리는 영똥한 일을 하거나 자기의 할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을 뉘잡을 때 '넋빠진 놈,이라고 말한다 또는 열이 나카버렸다'는 뜻인지 '열+간이,라고도 한다. 실상 우리 모두가 음미해 볼 말이다.

옛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옷을 입기를 원했던 임금님이 금실, 은실로 수놓은 비단옷을 입어 보았지만 눈에 차지 않았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옷(?)을 입고서야 매우 흐뭇해서 나귀를 타고 거리를 활보하여 "벌거벗은 임금님 지나간다"고 깔깔거리며 놀림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생각난다. 아찔되면 우리는 이 임금님을 '넋빠진 임금님,이라고 아니 부를 수 없겠다.

사실상 우리시대엔 더욱 이러한 사람들이 많다. 년전 성경을 멋대로 해석하여 전문가들을 우롱했던 위정자의 얘기를 차치하고서라도, 며칠 전 <여호와 증인>에 맹신하다보니 사랑하는 딸을 죽게했던 넋나간 어머니, 21세 처녀의 탈세협박에 거액을 내다바이 당한 사장 마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는가?

그러나 이들에게만 돌을 던질 수 없다. 우리는 흘러가는 물에 내어 던져진 썩은 물고기처럼 살아가는 넋뿐만이 아니라 몸마저 썩어버리지는 않았는가! 하기가 나 자신 성품의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조금 고단하다고 일을 미룬다거나 골치아픈 일엔 있어버리고픈 충동을 느끼지 아니했는가? 나도 뉘이 달아나려는 것 같다.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나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피장 파장이 다.

아니다. 단 한번의 승고하고 기록한 삶을 이렇게 내맡겨 버릴 수 없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여러가지 유희에, 주색에, 혹은 맹신, 맹종에 내맡겨 버린 삶에 의미가 있는가?

우리 모두 인생여로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생각해야 할 때다. 우리는 뉘을 찾아야 한다. 열을 찾아야 한다. 2000여년전의 그리스도의 넋은 영원불멸의 넋이요, 우리 전 조들의 핏속에 흐르고있다. 60여년전 3·1절의 넋, 20여년전의 4·19의넋에 면면히 담겨져 있다. 우리는 마땅히 그들의 넋을 기리며 그들의 열을 심어야겠다. 정신적인, 육체적인 안일무사주의 정식적 노예상태에서 벗어나자!

빠져나간 넋을 제자리에 놓자!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오늘의 '기쁜 소식,의 참뜻을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

<이리 청인동 보좌신부>



덕분(德分)에

"요즈음 어떻게 지내십니까?"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쓰는 인삿말의 하나로 <덕분에>라는 말을 꼽을 수 있다. 펴 좋은 뜻을 지닌 인삿말인데도 너무나 흔하게 써버려서 그러한지, 아니면 거의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 되어서 그런지 별로 그 맛이 없다 그런데 지난 주일날 재방송된 T·V프로그램 '초원의 집'에서는 그 <덕분에>라는 말이 콧등을 시큰하게 했다

호두나무숲에 새로 온 은행가 아저씨는 고생하면서 돈을 벌어서인지 <남>에 대한 의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한 어린이가 남시터에서 베푼 친절조차 어떤 계산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오해하는, 철두철미하게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다. 마치 현대인의 어떤 차디찬 모습을 그대로 그려놓은것 같아 이 세상의 모습을 실감케 한다. 어린 소녀의 모습은 그리스도처럼 느껴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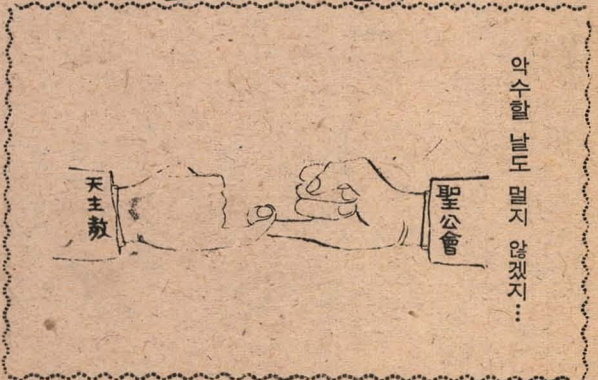
돌덩이보다도 더 굳어 있던 은행가 아저씨에게 자기 딸의 진심어린 우정을 설명하는 아버지의 행동 또한 기록하지 못했다. 어쩌면 그 아버지의 역할이 바로 교회의 그것이지 아닌가 싶다.

"아저씨, 고기 많이 잡으셨어요?"

"음. 네. 빵가루 <덕분에.>"

"아저씨 <덕분에>"하며 호두나무숲 어린이들이 그렇게도 열망하던 책을 들어드이는데 어린 소녀의 감사와 감격에 넘친 미소 또한 눈시울을 뜨겁게 한다. 자기만을 알던 은행가 아저씨는 그가 낚은 고기를 소녀네 식구들과 <함께 나누어>먹으며 담소하는 모습으로 영화는 끝난다
사순절이 가까워 오는데, 나의 모습은 그 은행가 아저씨와 얼마나 다른가?

순정이 산책





구령과 표양

정 정 권

진리와 사랑과 믿음으로
만일 영혼을 구하기를 원할진대
어느 표양을 할고

1. 영령구제 노력(력)한것은
내 자신을 사탄 목상에 생각하고
내 구령(령) 사칭을 등(든)든이 하는 것이고
2. 천상 예루살렘의 식구가 하나라도 더 늘 때
천국은 마치 큰 언회하는 집과 같을(같은)것이고
3. 호수천신은 동료 모든 천신의(에)게 선공 축하를
맞(받)고 기뻐(뻐)하고
4. 성모님은 자기 기구 겐(?겔) 십에 기뻐(뻐)하고
5. 예수님은 성령이 헛되지 안한(않은)것에 기뻐(뻐)
하시고,
6. 성신은 자기 성충을 잘 쓴 것 기뻐(뻐)하고
7. 성부께서는 자기 간선한 조물 이룬것으로 기뻐
(뻐)하실 것이고

영혼을 구하기 어느 표양할고 하였스(으)니
표양은 주일미사 참예

십계(계) 계(계)명을 잘 지킴(킴)으로써
천주님께 공경이 되리라 맞슴(맞슴)니다.

수루(루) 시목동 공소

※ 편집자 주

순정이에 투고하자는 교형자매들이 대개 40대 안쪽이
었다가 이순(耳順, 60세)이 훨씬 넘으신 노회장(老會長)
님의 글을 매하니 편집실은 감사와 기쁨으로 어쩔바를
몰랐습니다.

회장님이 써주시대로 옮겼습니다. 천자법이 틀린 곳만
을 괄호에 넣어 바로잡아 보았습니다.

그 글 옆에는 교구의 원로 사제이신 김영구 신부님의
육고를 신게 되었습니다. 김신부님께서 진북팔단에 대해
무려 200자 원고지 100장이 넘는 분량의 글을 주셨습니
다만 순정이의 좁은 지면과 시거적인 편집 사정상 제대
로 옮겨드리지 못함을 죄스럽게 여깁니다.

경향잡지, 소년도 취급 합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는 가톨릭 센터로 연
락하세요

가 틀 리 시 보

전주시사장 범 석 규 신부
주재 기자 한 상 갑 (바오로)
수 금 원 범 덕 배 (떠또)

□전주시 서노송동 601, 가톨릭 센터 (☎3498)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김 영 구 신부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
들의 것이니.”(마태오 5,3)

우리가 낯이 구하고 있는 것은 행복한 생활이라기
보다 도리어 충실된 생활입니다. 참다운 기쁨이 없는 생
활 채워지지 않는 생활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 것인
지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생활이 그 무
엇에 의하여 가득 채워진다는 것, 이것은 사람의 무엇보
다도 곧선 소원입니다.

그런데 이 장증은 사람이 내던져진 이승의 거친 바다
속에서 쉽사리 채워질 수 있을까요? 안에서는 억누를
수 없는 갈증에 시달리고, 밖으로는 이를 메우기에 넉넉
한 아무 것도 없대서야, 사람은 오히려 태어나지 않았음
만 못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에게 있어, 이
충실된 행복이라는 것은 기꺼이 실현되어야만 할 대 문
제인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한 더 일깨 하기 위함이니라.”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
리들을 실망으로가 아니라 희망과 안심으로 이끌어가 줍
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들에게 신의 나라에의 길을 가르
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어쩐지 행복과는 반대인 듯한 울림
을 줍니다. 그리스도 원문에는 “복되도다, 마음이 결인
(乞人)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인이란 말은 누구나
싫어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인간성을 발전시켜 나감에
있어 땅위의 재산을 필요로 합니다. 무일푼인 사람이 어
찌 자기를 드높이고, 자녀를 교육시키고, 아름다운 생활
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결인을 전복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이 결인인 자’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인이라도
어느 결인과는 다릅니다. 하느님 앞에 자기가 결인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들은 목숨도, 재산도
우리를 자신의 힘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
두가 하느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정신의 힘, 마음의 풍
부함, 재능의 날개, 체력마저도 그러합니다. 이것을 깨
달은 사람의 마음은 가난하고, 그리고 이승에 있어 이미
행복한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들 중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뱅이도
있습니다. 학자도 있고, 무식자도 있습니다. “부자는 천
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리라”(마태 19장 23)고 하신 예
수의 깨우침은 다만 부유한 사람에게만 한정될 것이 아
닙니다. 물질에 집착되어 있는 사람은 빈부간에 신의 나
라를 마음에 받아들일 여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역경에
놓여 있어도 마음에 신을 갈망하는 이는 행복한진저!

교우 여러분의 성원속에 자라온 한국운수는
적은 자본으로 자립하고자 하시는 분을 구합니다.
전주시구 3, 군산지구 2 이리지구 1,
진안, 장수, 무주, 순창 지방, 각 1개소
위와같이 대리점을 증설코저 하오니 아래로 연락 하
시기 바랍니다.

한국 流 운수 온돌 공사

(본사 직영 호남 출장소)

이리시 인화동 2가 65-16(전화4940)

한 동 암 (모이세)

OSTAR 미사 전자장판 대아 전기 전복배리검
진주 전자 약탕기 전주 배리검

광 신 전 업 사

박 상기(안드레아)

전주시 중양동 3가16<한일관 앞> 전화 2-4753

□각종 조명기구, 석유 연소기구, 가정용 전자기구□

우리들의 태도

천주교 정의 구현 전국 사제단은 1977년 2월 7~8일 양일간에 걸쳐 3·1절 기도 사진과 우리 앞에 어두운 사태를 놓고 참된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보다 보람되게 죽고 살기 위해 모였다.

앞으로 사제의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더욱 진지한 모임을 갖고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다질 것을 결의한다.

1977년 2월 8일

천주교 정의 구현 전국 사제단

「3·1절 기도회 사진」 1주기(週忌)를 앞두고 천주교 정의 구현 전국 사제단 13개 교구 대표 60여명은 지난 2월 7~8 양일간에 걸쳐 서울 상지회관에 모여 「성서 신학 세미나」를 갖고 단식을 하며 장시간 열띤 회의를 가졌다.

우리들은 그간 진리와 정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바치지 못하고 안일무사에 젖어있던 자책속에 깊은 회회와 반성의 기도를 바치면서, 성경을 토대로 오늘의 현실을 직시, 검토, 참삶의 길을 모색했다.

그리고 새로운 결의와 각오로 확고한 자세를 재정립함과 아울러 난국에 처한 목자와 예언자로서의 회회와 순교 사명 이행을 굳게 다짐하고 다시 뭉쳐 일어섰다.

위는 우리들이 회회를 마쳐며 발표한 간단한(태도표명)이다. (김봉희 神父記)

사제양성후원비

청약액을 완납하신 교형자매들(1)

- 월명동 배금자(5십만원), 부녀회·월명2구·금동·영화동·신동중 구역(각 5만원)
 복자 오기순 신부(1십만원, 現 정양중), 조성호·임귀임·허순덕·이복주·윤화복·전종근(現 金정어)·유춘자·정옥규·홍명선·박홍기·김복수·김훈(死亡)·김화자·최용구(각 5만원), 이순애·나동덕·정인숙·신희환(각 2만 5천원), 박귀선·김명기(現 인친)(각 2만원), 서용현(1만 9천원), 박중현(1만 8천원), 이경호·장덕성·유복성·김이순우·김방용·이영우·권태임·김수겸·김정숙(각 1만원), 박태경(8천 8백원), 김정배(7천 2백원), 이순화(6천 4백원), 조제연·신영애·김용녀·김모니카·노순애(現 부산)·송금자·정신숙(現 서울)(각 5천원), 신경순(4천 8백원), 허안나·이정희·박선애(각 3천원) 이진희(2천 6백원), 문영희·김행자(2천 4백원), 봉영숙·최준식(現 서울)·안시아(각 2천원), 이두서아(1천 6백원), 김분정(1천 2백원)
 서학동 육녀철(5만원), 김제열(3만원), 김영문(2만 5천원), 손숙자·이영숙(각 2만원)
 김한기(1만 5천원), 정양동(1만 3천원), 박기훈·김영자·손옥숙(각 1만원), 강순옥(5천원), 최수선(2천원), 서명덕(8백원), 한순례(1백원)
 황등 본당교우들·월성공소·신동공소(각 5만원)
 덕진 김정규(3만원)
 동 한상간(現 덕진)·이종숙(現 金정어)·황희상(각 5만원)

요십이 (85) 김병오



사진기계·사진재료 도산매

태광사

전주시 중앙동 3가 67
 전주우체국 후문 앞
 전화 ④ 4 6 3 6
 유(가이다노)영문

원아모집, 원아모집, 원아모집

자격: 만 5세~만 6세 어린이

성체유치원

주소: 전주시 중노총동
 성체수녀원 내
 전화: ②8408, ③3231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앞 교우집으로!

미성당 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전화 ②3301 (자택 ⑧8548)

* 원아 모집 *

자격: 만 5세~6세 어린이

기간: 1월 27일~2월 27일

성모유치원

주소: 전주 중앙 성당 내

전화: ③ 6 6 6 9, ③ 3 8 7 4 번

지검부: 박지, 장관, 각종 비니루
 문방구: 학용품, 사무용품
 완구부: 보행기, 어린이 장난감 일체

동아상회

※교우 특별우대, 많이 찾아주세요!
 장 경 양 (례오)
 완주국 고산면 읍내리(주장 옆)
 전화 1 0 6 번

연탄 온수 온돌 보일러

☆ 꼭 찾아 주세요
 연탄가스 때문에, 고생하세요?
 이제 염려없어요
 연탄 온수 온돌 보일러가
 연탄가스에서 해방시켜 드립니다.

□연락처: 전주 중앙성당 상가
 (③ 4 8 7 4, ② 2 6 2 8)
 범창규(베드르)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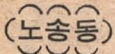
1. <숲정이>편집실 소식 ① 20일자 숲정이 분당 소식은 14일까지 도착되지 않으면 공지사항에서 빠집니다. 구정이 2월 18일이라서 숲정이 제작이나 발송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② 광고는 부득이 매금을 선납해 주신 것만 취급합니다. 양찰하시고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 군산 팔마성당(前 중동성당) 경장동 463의 9(전화 2623)으로 2월 12일 이전 낙성식은 3월 1일 오후 2시(박성운 주임 신부님 회갑연을 겸함)
3. 주일학교 교리교사 연수회(본당·공소합동, 20일 오후 2시-24일, 가톨릭센터)
4. 중고등학생 교리 경시대회(20일 오후 2시, 각 분당에서, 범위 : 마르코 복음·교리서 3, 4편·기도문)
5. 대학생 연수회 (26일-27일)
6. 금주의 방송 안내(서해방송, 매일밤 11시 35분, 「사색의 오솔길」 한봉섭 신부 방송)



전화 ③3651
3874

주임 신부 서 울 북
보좌 신부 김 임 석
사도 회장 이 진 복

1. 꾸리아 월례회 : 오늘 오후 2시, 강당
2. 성모 유치원 졸업식 : 16일 오전 10시
3. 구정 합동 위령미사시간
오전 6시반, 오전 10시, 오후-7시
4. 성지가지 회수 : 20일까지, 본당사무실로
5. 미사 절레때 가족끼리 모여 앉으시다.
6. 중앙 신용조합 제4차 정기총회는 성황리에 끝났습니
다(조합원은 통장 지참하여 배낭을 받고 사랑의 선물
당첨자는 15일까지 찾아가시기 바람)
7. 주일 봉헌금 : 100,860원, 감사합니다.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공 아 영
보좌 신부 권 움 동
사도 회장 박 종 중

1. 신용조합 정기총회 : 오늘 공식미사 후
2. 주일학교 개학 : 오늘, 부모님들 꼭 보내세요
매주(토)-오후 2시반(교리), 오후 3시반(미사)
3. 사제양성 후원회 조직-추고하시겠습니다.
회장-조해형(벤드로), 부회장-유영철(요한), 소귀례
(모니카), 총무-박규선(방지가), 회계-박매리수(멜라
니아),
추진위원, 사도회 상임위원, 각 액션단체의장, 구역장
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4. 구정 합동 위령미사 : 오전 10시, 오후 7시
각 가정은 16일까지 미사예물 신청 바람
5. 어린이 영세식 : 19일(토) 오후 3시
대부모님을 모시고 오후 2시반까지 사무실로 오시오
6. 주일 봉헌금 : 42,246원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박 종 근
사도 회장 김 움 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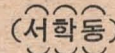
1. 구정 합동 위령미사 : 18일 오후 7시-본당
19일 오전 11시-미산리, 오후 4시-전당리
※ 조상들을 위해 정성껏 봉헌합니다.
2. 직장인 J.O.C 조직에 적극 참여 바람
3. 청년회 월례회 : 20일, 많은 참여 바람
4. 찬주 평신도 특별 강론 : 사제양성에 대해서
5. 예비자 교리 : (월) 11시, (금) 오후 4시,
(토, 일)저녁미사 후
6. 청년 B.F공개 발표 : 16일, 많은참석 바람
7. 주일 봉헌금 : 42,960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 종 길
사도 회장 조 성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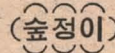
1. 견진 신청 : 28일까지, 국민학교 5학년이상
(세례 증명서 1통 지참)
2. 성우회 월례회 : 공식미사 후
3. 구정 합동 위령미사 : 오전 11시
각 가정은 17일까지 신청, 많은 참가바람
4. 각 가정마다 신용협동조합에 가입합니다
5. 불우 이웃돕기, 각 신심단체 활동, 사도회 활동등
제반 활동은 사도회와 총재를 통하여 실시합니다
6. 주일 봉헌금 : 30,480원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오 현 택
사도 회장 박 장 춘

1. 선교주일 : L.M에 많은 가입 바람
2. 신용조합 정기총회 : 오늘 오후 2시부터
3. 사제 연수회 : 13일 오후 3시~17일까지
4. 반사회 : 5~8일까지 모두 쉽니다.
5. 구정 합동미사 : 18일 저녁 7시반
6. 주일 봉헌금 : 35,490원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 대 권
사도 회장 전 종 근

1. 구정 합동 위령미사 봉헌 : 18일(금) 10시
2. 중고생은 특별교리에 꼭 참석합니다.
3. 내집을 찾아 주시오
4. 주일 봉헌금 : 54,605원 감사합니다.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 함 기
보좌 신부 김 윤 석
사도 회장 유 석 중

1. 동반장회의(구정대비) : 저녁미사 후
2. 자모회 : 10시 미사후
3. 성가정회 : (월) 오후 2시
4. 중·고 새 회장단 : 회장-박효찬(안드레아)
부회장-박미선(세시리아), 김영권(요셉)
5. 구정 합동 미사 : 6시반, 10시, 오후 7시
6. 장우회 : 20일 오후 5시로 연기
7. 성서 동지회 수련대회 : 오늘, 무학산에서,
회비 1천원
8. 주일 봉헌금 : 106,740원